

전남광주특별시, 암코 3조 증설 행정절차 신속 추진



민형배 시장이 19일 암코코리아 광주공장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기업지원TF 운영...용수·하수·전력·인허가 지원

폐수처리시설 증설...2028년 추가 완공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암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에 맞춰 폐수처리시설 증설 추진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암코코리아가 공장을 증설하면 하루 폐수 발생량이 당초 6000t에서 9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하수처리장과 장성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성군과 함께 2028년 6월을 목표로 장성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산단 관리계획 변경 및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원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발주·시공·준공 후 시운전을 통해 폐

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서 '기업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용수·하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과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협의해 왔다.

이같은 조치는 암코코리아가 지난 19일 '첨단 반도체 신규 제조라인 착공식'에서 3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투자 규모는 지난 6월30일 발표 당시 1조원에서 3조원으로 3배가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도 2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조원 투자 때 예상된 폐수는 하루 6000t이었다. 이 가운데 3500t은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2500t은 장성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3조원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폐수 발생량은 하루 9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3000t의 폐수는 장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은 앞서 지난 9월18일 장성군과 '암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광주반도체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암코의 추가 투자는 전남광주 통합의 힘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로, 산업과 폐수처리시설 같은 환경 인프라의 연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폐수 발생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기아,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 실증 추진

현대자동차·기아가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를 위해 실제 물류 환경에서 기술 신뢰성과 운행 안정성 검증에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남양기술연구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마스오, 라이드플러스와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실제 물류 노선에서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을 운영하며 차량 제어 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 연계 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현대차·기아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대와 엑시언트 1대 등 총 2대의 실증 차량 개발에 착수해 내년 초 제공할 예정이다. 각 차량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맞춤형 제어기

와 차량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 본격적인 실증은 내년 말까지 약 100km의 고속도로·도심 복합 구간과 약 400km의 고속도로 중심 장거리 구간 등 2개 운송 환경에서 진행된다.

국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마스오와 라이드플러스는 각 특화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운영되는 물류 노선을 활용해 실증 운영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는 이 과정에서 자체 선형개발과 외부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병행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어 기술 간 연계 역량을 축적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대형트럭의 차량 제어 및 안전 이중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안전 이중화 기술은 일부 시

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조 시스템이 해당 기능을 대신해 차량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로,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은 대형트럭의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서울시와 레벨 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협약을 맺고, 버스와 대형트럭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